

韓國 · 中國 · 日本의 補陀洛 信仰

松本眞輔*

(e-mail : nosmoke@khu.ac.kr)

目 次

1. 들어가며
 2. 보타락이란?
 3. 한국 보타락 신앙의 성지——낙산사
 4. 중국 보타락 신앙의 성지——보타산
 5. 일본의 보타락 신앙
 6. 나오며
-

1.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보타락(補陀洛) 신앙의 특성에 대해서 한국 또는 중국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데 있다.

보타락은 관음보살이 사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 『화엄경(華嚴經)』이나 『불공견색신변진언경(不空羂索神變眞言經)』 등 여러 경전이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에도 그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관음 신앙이 인도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보급됨에 따라 관음보살이 사는 보타락의 존재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관음이 사는 곳으로서의 보타락 신앙이 생겨서 한국에서는 낙산사(洛山寺), 중국에서는 보타산(普陀山), 일본에서는 닛코 후타라산(日光二荒山) 등, 각국에서 보타락이라는 이름에 유래한 성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과는 관음신앙과 보타락의 관계에 적지 않은

* 慶熙大學校, 助教授, 古典文學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곳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고 하는 형태로 성지가 형성되었고 그 유래를 전하는 설화(사찰연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 닛코 후타라산처럼 신불습합을 전제로 해서 보타락 신앙이 받아들여진 사례나, 이것과는 별도로 기이반도(紀伊半島)에서 바다를 건너 보타락에 가려고 하는 「보타락도해(補陀洛渡海)」가 중세·근세를 통해서 성행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자리에 관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낙산사나 중국 보타산의 신앙과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보타락 신앙에는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하 이러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밝혀 가고자 한다.

일본의 보타락 신앙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있는데¹⁾, 중국이나 한국과 비교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같은 문제는 중국이나 한국의 보타락 신앙 연구에 대해서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중일의 보타락 신앙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보타락이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보타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두고자 한다.

보타락에 관해서는 이미 불교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정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하 그것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둔다²⁾.

보타락은 인도에서 발생하고 산스크리트어로 「potalaka」라고 한다. 이것이 중국에 들어가고 한자음으로 「보타락(補陀洛)」 「보타락(補陀落)」 「보타락가(補陀洛迦)」 「보달락가(補怛洛迦)」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된 이 말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된다. 동진(東晉) 불타발타라(仏駄跋陀羅:359~429년) 번역 60권 『화엄경』에는 「광명산(光明山)」이라는 의미의 번역어가 사용되었는데,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652~710년) 번역 80권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과 「입불사의혜탈경 계보현행원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 발음을 옮긴 「보달락가(補怛洛迦)」가 등장한다.

1) 일본의 보타락 도해에 대해서는 尾畑喜一郎(1964) 「補陀洛渡海」(『国学院雜誌』65-10)를 비롯해서 역사적 변천이 밝혀져 왔다. 종합적인 연구로 根井浄(2001) 『補陀落渡海史』(法蔵館)가 있고 중세 이후 활성화된 보타락 신앙의 실태를 알 수 있다.

2) 後藤大用(1958) 「補陀洛の研究」(『觀世音菩薩の研究』山喜仏書林)

「선남자야, 남쪽에 산이 있다. 이름을 보달낙가(補怛洛迦)라고 한다. 그곳에 보살이 있다. 이름은 관자재라고 한다. 너는 그를 방문하면 좋다». 선재동자는 질문했다. 「보살은 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 수행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관음보살은 이것을 노래로 설명했다. 「해상에 있는 산에 많은 성현이 있는/많은 보물이 있고 지극히 청정하다/꽃, 과일, 수목들이 많다/샘이나 연못에 물이 넘치고 있다/용맹한 사람인 관자재보살/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산에 살고 있다/너는 그곳에 가서 공덕에 대해 질문해라/그는 너에게 큰 방편을 가르칠 것이다」 그 때 선재동자는 관음보살의 발밑에 무릎 꿇고 예배했다³⁾.

남쪽에 산이 있고 그곳이 「보달락가」라고 하며, 그곳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장소는 매우 청정하고 수목이 우거지고 샘이 있다고 한다.

한편 80권 『화엄경』에 앞서 현장(玄奘) 『대당서역기』(646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나라의 남쪽의 바닷가에 말랄야산(秣刺耶山)이 있다. <중략> 말랄야산의 동쪽으로 포낙가산(布呬洛迦山)이 있다. 산길은 위험하고 골짜기의 바위는 험하게 기울어 있다. 산의 정상에 연못이 있다. 그 물은 거울처럼 맑고 대하처럼 흐르고 있다. 20잡(匝) 정도 산을 둘러싸고 남쪽 바다에 들어간다. 연못 부근에 돌로 된 천궁이 있고 관자재보살이 와서 놀고 있다⁴⁾.

여기서는 인도 남쪽 바다에서 동쪽으로 간 곳에 「포달락가산」이 있고 관음보살이 「왕래」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산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은 험하고, 정상에 연못이 있고, 그 물은 맑아서 대하가 되어 바다에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화엄경』과는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산 위에 연못이 있다는 이미지는 공통된다. 현장이 기술한 이 산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고찰되고 있지만⁵⁾, 실제로 현장이 여기에 갔는지는

3) 善男子。於此南方。有山。名補怛洛迦。彼有菩薩。名觀自在。汝詣彼問。菩薩云何。學菩薩行。修菩薩道。卽說頌曰。「海上有山多聖賢／衆寶所成極清淨／華果樹林皆遍滿／泉流池沼悉具足／勇猛丈夫觀自在／爲利衆生住此山／汝應往問諸功德／彼當示汝大方便」時善財童子。頂禮其足。遶無量匝已。慇懃瞻仰。辭退而去 (『大正新修大藏經 (10)』 p.366c) *인용문은 필자번역(이하 같음)

4) 國南濱海有秣刺耶山。<中略> 秣刺耶山東有布呬洛迦山。山徑危險巖谷敬傾。山頂有池。其水澄鏡流出大河。周流繞山二十匝入南海。池側有石天宮。觀自在菩薩往來遊舍。 (『大正新修大藏經(51)』 p.932a)

5) 彦坂周(1989) 「南印ボティヤ山、觀音信仰發祥の聖地」 (『印度學佛教學研究』 38) 등은 실제로 있는 산을 지적하고 있다.

분명하지 않다.

또한 보타락에 관한 언급은 밀교 경전에도 많이 나타나고⁶⁾ 8 세기 초에 보리류지(菩提流支)가 번역한 밀교 경전 『불공견색신변진언경(不空羂索神變眞言經)』에도 자세한 묘사가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박가범(薄伽梵)은 보타낙산의 관세음보살이 사는 큰 궁전에 있었다. 그 궁전은 깨끗하고 수많은 드문 보물이 있다. <중략> 또한 수많은 보물과 향기가 떠도는 수목이 있다. 주변에 향기가 퍼지고 장엄한 분위기이다. 또한 수많은 보물의 연못이 있다. 여덟 개의 공덕이 물속에 가득 차 있다. 향기의 꽃과 부드러운 풀이 여기저기에 있다. 꽃은 선명하게 피어 매우 즐겁다. 그 산에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 모습은 절묘하고 모두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⁷⁾.

여기에 등장하는 박가범(薄伽梵)이라는 이름은 석가를 의미한다. 석가가 보타락에 산 적이 있는데, 위에 인용문에 나타나는 보타락의 묘사를 살펴보면, 많은 수목이 있고 향기가 서린 장엄한 분위기 속에 역시 연못이 있고 꽃이 피어 있다고 한다. 또한 동물들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세계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불교 경전에 나타난 보타락의 기본적인 특징은 수목이 우거지는 산속에 샘이 있고, 거기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경전에 따라 세세한 표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80권 『화엄경』에는 「해상에 산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타락이 해상의 섬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당서역기』나 60권 『화엄경』과는 약간 다른 기술이지만, 보타락이 바다의 섬이었다는 설명은 다른 경전에도 등장한다. 선행연구에도 지적이 있는데⁸⁾, 『타라니집경(陀羅尼集經)』 등에도 바다 속의 섬이라고 쓰여 있다⁹⁾.

그런데 이와 같이 경전에 나타난 보타락의 기술에서 하나의 큰 속성을 생각

6) 増尾伸一郎(2008) 「我、現身にして補陀落山へ帰参せん」(金永晃編 『仏教の死生観と基層信仰』) 勉誠出版

7) 如是我聞。一時薄伽梵。住補陀落山觀世音菩薩摩訶薩大宮殿中。其殿純以無量大宝上妙珍奇。<中略>及余無量億千万種諸宝香樹。氣交芬馥圍繞莊嚴。復有無量宝池泉沼。八功德水彌滿其中。香花軟草處處皆有。衆華映飾甚可愛樂。其山多有種種異類一切禽獸。形貌殊妙皆具慈心。(『大正新修大藏經(20)』 p.227a)

8) 동 전계주(1)

9) 『陀羅尼集經』 「一時佛在補陀落伽山中(此云海島也)」(『大正新修大藏經(18)』 p800a)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보타락의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당서역기』의 기술은 현장이 방문한 산이라는 전제가 있다(실제로 갔는지 여태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대당서역기』에서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보타락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화엄경』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화엄경』에서 「보달락가」가 나타나는 부분은 「입법계품」이다. 그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재동자는 자신이 사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 보살(고승)들을 방문하고 있다. 그래서 「보달락가」도 다른 세계에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한국 보타락 신앙의 성지——낙산사

한국의 보타락 신앙으로 유명한 절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낙산사이다. 2005년 대화재로 큰 피해를 입는 등, 과거에도 여러 번 황폐와 부흥을 반복해 온 고찰이다. 「낙」산사라는 명칭은 보타 「락」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관음 신앙의 도량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는 절에 있는 언덕에 거대한 「해수관음」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원통보전이나 의상대, 흥련암, 관음굴 등 여러 시설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 해수관음은 중국이나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관음으로 기원 등은 확실하지 않다. 해수관음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낙산사에 현존하는 「낙산사 해수 관음 공중 사리비(洛山寺海水觀音空中舍利碑)」가 있고 이것에 따르면 1683년에 「명주」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을 계기로 이 비석이 만들어졌다고 한다¹⁰⁾. 이 비문으로 적어도 17 세기에는 「해수관음」이라는 호칭이 있었던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낙산사의 신앙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설화가 『삼국유사』에 있다. 의상이 당나라에서 귀국했을 때 관음보살을 만나서 서역의 「보타낙가산」에 유래한 「낙산」사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 내용이다.

옛날 의상 법사가 비로소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 안에 산다고 듣고 이 때문에 낙산이라고 이름하였다. 대개 서역의 보타락가산은 이를 소백화

10) 낙산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 사찰문화연구원 편(1998) 『洛山寺: 觀音信仰의 聖地 五峰山 洛山寺』(사찰문화연구원)가 있다. 일본에서도 神野富一(2005) 「洛山寺考」(『甲南女子大學研究紀要 文學·文化編』41)가 『삼국유사』 낙산사 설화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바다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다른 시각으로 松本眞輔(2010) 「韓國における寺刹縁起の展開—洛山寺の縁起と水月觀音·海水觀音」(『説話文學研究』45)에서도 논한 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낙산사와 항해를 연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낙산사 설화에는 이러한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하여, 곧 백의보살의 진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므로 이를 빌어 이름하였던 것이다. 그가 제계한 지 7일째에 좌구를 새벽 물 위에 띄웠더니, 용천의 8부 시종이 굴속으로 그를 인도하였다. 공중을 향해 참례하니 수정염주 한 꿩미를 내어 주므로 의상이 받아 물러 나왔다. 동해의 용도 또 여의보주 한 알을 바치므로 법사가 받들고 나왔다. 다시 7일을 제계하고 나서 곧 관음의 진용을 보았다. 관음이 말하기를 “자리 위의 산정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다. 그 땅에 불전을 지음이 마땅하리라”고 하였다. 법사가 그 말을 듣고 굴을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왔다.¹¹⁾

낙산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보고, 의상이 귀국한 670년의 다음 해를 낙산사 창건으로 주장하고 있다¹²⁾. 단지 화재를 계기로 실시된 발굴 조사에 의하면 「낙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옛날 건축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화문토기나 선문중판타날판 기와의 존재, 문헌 기록을 통해서 신라시대에 낙산사가 존재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³⁾」라고 해서 신라시대 창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낙산사 창건 시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할 중국 보타산과의 전후관계라는 문제도 있어 간단하게 결론은 내릴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낙산사 창건 설화를 경전 등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문제점이 보인다.

하나는 의상이 관음의 「진용(眞容)」을 본 장소가 현실 세계라는 점이다. 선재동자가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보달낙가」에서 관음보살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의상도 역시 자신의 출신지인 신라에서 관음보살을 만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낙산사가 있는 장소에 관한 문제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낙산사가 「보타낙가산」과 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의상이 관음보살을 만난 장소는 해변이다. 그리고 낙「산」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언덕만 있다. 낙산사는 경전들에 등장하는 보타낙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본 「산길은 위험하고 골짜기의 바위는 험하게 기울어 있다¹⁴⁾」라는 풍경은 현실의 낙산사에는 찾을 수 없고 「샘이나 연못에 물이 넘치고 있다¹⁵⁾」라는 풍경도 없다. 『삼국유사』의 기술에 약간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험한

11) 번역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3) 『역주 삼국유사 3』(p244-6). 원문은 「昔、<義湘法師>始自<唐>來還、聞大悲眞身住此海辺窟內、故因名<洛山>、盖<西域><宝陀洛伽山>、此云<小白華>、乃白衣大士眞身住處、故借此名之。齋戒七日、浮座具晨水上、龍天八部侍從、引入峯內。參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之、<湘>領受而退。東海龍亦獻如意宝珠一顆。師捧出、更齋七日、乃見眞容、謂曰、於座上山頂双竹湧生、當其地作殿宜矣。師聞之出峯、果有竹從地湧出。」(동 p239)

12) 그러나 실제로는 사료로 연대를 확정할 수 없다.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 p329

14) 동 전계주(3)

15) 동 전계주(2)

산이라는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변의 굴 속」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점으로 「산」을 전제로 한 『대당서역기』의 이미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신앙이 일어났을까. 물론 전제로서는 낙산사=보타낙이 아닌 이상, 경전 세계가 반드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낙산사가 해변에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원래 관음 신앙이 해양신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고¹⁶⁾ 또한 『법화경』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관음이 해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는 신앙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에 보는 중국 보타산과의 관계도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중국 보타락 신앙의 성지——보타산

낙산사에 유사한 신앙 형태를 가지는 절이 중국 절강성에 존재한다. 이미 낙산사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언급이 있는 보타산(858년 창건)이다. 낙산사의 흥련암이나 관음굴에 유사한 조음동이 있는 등, 양자는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연구에서는 낙산사 선행설(671년)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¹⁷⁾. 물론 『삼국유사』에 있는 낙산사 창건 설화를 그대로 「사실(史實,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연대적으로는 낙산사가 선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보타산의 신앙도 「산」 보다는 「바다」에 비중이 있는 것을 그 창건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타산의 창건을 전하는 자료 두 가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소개하는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는 「신라의 장사하는 사람」이 보타산을 열었다고 한다.

26일 서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사자는 3명의 사절을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기슭에 올라 매잠(梅岑)에 들어갔다. 옛날은 매자(梅子)가 정말로 살았던 땅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었다. 깊은 산의 자취가 돌의 다리 위에 있다. 그 산 기슭 안에 소량(蕭梁)이 세운 보타원이 있다. 건물에 영감이 있는 관음보살이 안치되어 있다. 일찍이 신라의 장사하는 사람이 오대산에 가서 그 불상을 새겨 그것을 배에 놓고 신라에 돌아가려고 했다. 바다에 나왔더니 암초에 걸려서 배는 가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 불상을 암초 위에 두었다. 승려 종악(宗岳)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건물에 안치했다. 그 후 왕래하는 배는 반드시 그 불상에게 복을 빌었다. 감응하지 않는 적이 없다. 오월(吳越)의 전씨가 그 불상을 성 안에 있는 개원사로 옮겼다. 지금 매잠에서 모시는 불상은 나중에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다¹⁸⁾.

16) 주(10)참조

17) 동 건계주(10)사찰문화연구원(1998)등

그러나 신라인이 보타산을 열었다는 설은 현재는 널리 알려지지 않다. 보타산의 창건설화나 불교사 관련 문헌들은 「일본국 승려 혜악」이 보타산을 개척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 검토할 지반(志磐)편 『불조통기』(1269년), 각안(覺岸)편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1354년)등의 불교사 서적이거나, 혹은 보타산에 관한 단독서인 성희명(盛熙明) 『보타락가산전(補陀洛迦山伝)』(1361년) 등에 혜악의 이름이 보인다. 또한 최근의 『보타락가신지(補陀洛迦新志)』 번각의 해제에서도 그 설은 답습되어 있다¹⁹⁾. 그리고 현재는 보타산에 개척자를 기념한 혜악기념당도 세워져 있다.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혜악이 보타산을 열었다는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일본 승려 혜악은 오대산을 순례해서 관음상을 입수했다. 사명을 마치고 귀국하려고 했을 때 배는 보타산을 지나가고 있다가 돌 위에 걸려서 가지 않게 되었다. 모두가 무서워해서 이것에 빌어서 말했다. 「만약 이 불상을 해동으로 모시면 불교의 기운도 아직 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에 두고자 한다」. 그러자 배는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악은 이것을 그리워해서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해상에 작은 집을 만들어 이곳에 불상을 안치했다(지금 산 부근에 「신라초」가 있다). 은(鄞)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그 불상을 개원사에 안치하려고 했다(지금 사람들은 오대사라고도 한다. 또 불궁거관음(不肯去觀音)이라고도 한다). 그 후 이상한 승려가 있었는데, 가목(嘉木)을 들고 절에 왔다. 그리고 그 불상을 모방해서 새로운 불상을 새겼다. 문을 닫아서 공덕을 기원하고 1개월 후 불상을 완성했다. 그러자 승려는 어디론가 가 버렸다. 그래서 그 불상을 보타산으로 옮겼다. 산은 큰 바다에 있고 은의 성에서 동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6백 리 떨어진 곳에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남해안의 섬이다. 산이 있고 이름을 보달락가라고 한다. 관음보살이 그 속에 살고 있다. 즉 『대비경』에 나오는 보타락가산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궁전이다. 이것은 석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자비심을 설법한 자리이다. 그 산에 조음동이 있다. 바다의 물이 출입해 낮이나 밤에도 소리를 내고 있다. 조음동 앞에 돌의 다리가 있다.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진심으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관음 대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²⁰⁾.

18) 二十六日戊寅。西北風勁甚。使者率三節人。以小舟。登岸入梅岑。旧云梅子眞棲隱之地。故得此名。有履迹瓢痕。在石橋上。其深麓中。有蕭梁所建寶陀院。殿有靈感觀音。昔新羅賈人。往五台。刻其像。欲載歸其國。暨出海遇焦。舟膠不進。乃還置像於焦上。院僧宗岳者。迎奉於殿。自後海舶往來。必詣祈福。無不感心。吳越錢氏。移其像於城中開元寺。今梅岑所尊奉。卽後來所作也。(卷第三十四 海道一「梅岑」 『叢書集成(3239)』 p.119)

19) 「日僧慧鏗自五台山淸觀音像歸國」(江蘇省廣陵古籍刻印社(1996) 『中國仏寺叢刊(82)』 p1)

20) 日本國沙門慧鏗。禮五台山得觀音像。道四明將歸國。舟過補陀山附著石上不得進。衆疑懼禱之曰。若尊像於海東機緣未熟。請留此山。舟即浮動。鏗哀慕不能去。乃結廬海上以奉之(今山側有新羅礁)。鄞人聞之。請其像歸安開元寺(今人或稱五台寺。又稱不肯去觀音)。其後有異僧。持嘉木至寺。做其製刻之。扁戶施功彌月成像。忽失僧所在。乃迎置至補陀山。山在大海中。去鄞城東南水道六

「신라의 장사하는 사람」과 「일본국 승려 혜악」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오대산에서 돌아와 귀국할 때 배가 잘 가지 못해 입수한 관음상을 안치하고 이 불상이 보타산의 관음이라는 이야기이다. 『불조통기』와 유사한 설화로는 『보경사명지(寶慶四明志)』나 『보타락가산전(補陀洛迦山傳)』 등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보타산의 공식적인 사찰설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혜악」이라는 이름이 엔닌(圓仁)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등장하며, 그가 오대산에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이 중국 자료에 등장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보타산을 둘러싼 「사실」에 관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절 창건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낙산사와 마찬가지로 보타산도 「바다」에 중점을 둔 보타락 신앙의 장소라는 점은 확실히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보타산이 있는 장소 (해상의 섬) 나 창건 설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보타산의 경우 항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점이 낙산사와 다른 부분일 것이다 (낙산사와 보타산을 연결할 때 해상 교통의 문제가 안이하게 언급되는데, 적어도 낙산사의 신앙과 항해의 문제는 관계가 깊지 않다).

그런데, 한국 낙산사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보타산이지만, 한편에서는 큰 차이도 존재한다. 하나는 보타산이 바다에 있는 섬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타라니집경』의 기술과도 일치한다²¹⁾. 그리고 높은 산이 아니지만 「보타사, 이 주의 동해 매잠산에 있다 <中略> 산의 수목의 높이는 수십장²²⁾」이라고 표현되듯이 이 섬에는 여러 산이 있다. 현장이 기술한 「산길은 위험하고 골짜기의 바위는 험하게 기울고 있다²³⁾」가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는데, 이것은 작은 언덕에 위치하는 낙산사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바다에 면한 장소에 있고 거기에 관음보살이 산다는 신앙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5. 일본의 보타락 신앙

여기서는 일본의 보타락 신앙으로 닛코 후타라산과, 구마노(熊野)를 중심으

百里。即華嚴所謂南海岸孤絕處。有山名補怛落迦。觀音菩薩住其中也。即大悲經所謂補陀落迦山觀世音宮殿。是為對釈迦佛說大悲心印之所。其山有潮音洞。海潮吞吐晝夜碎旬。洞前石橋。瞻禮者至此懇禱。或見大士宴坐。或見善財俯仰將迎。『大正新修大藏經(49)』p.388b

21) 동 전계주(9)

22) 寶陀寺。在州之東海梅岑山 <中略> 山茶樹高數丈(『보타락가산전』 『大正新修大藏經(51)』 p1136b)

23) 동 전계주(4)

로 한 보타락도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는데²⁴⁾, 이 논문에서는 한국·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보살의 거처」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닛코 후타라산부터 논하고자 한다. 닛코 후타라산은 보타락과 연결된 신사이다. 물론 신사라고 해도 『보타락산 건립 수행 일기(補陀洛山建立修行日記)²⁵⁾』에 「우리 산은 대승 불교가 잘 어울리는 땅이며,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하는 장소²⁶⁾」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신불습합을 전제로 한 신사이다. 신이 먼저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것에 천수관음이 습합한 신사이다. 그리고 닛코라는 장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양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반면, 「북쪽을 찾아갔는데, 마침내 이 산 기슭에 왔다. 큰 강이 있다. 바위가 험하고 은색의 물이 흐르고 있다(『補陀洛山建立修行日記』)²⁷⁾」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형적인 이미지는 앞에서 본 『화엄경』이나 『대당서역기』와 유사하다. 어디까지나 산악신앙에 의거한 신사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보타락 신앙과 공통되는 부분으로서 신불습합을 전제로 이 산에 신=관음이 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 이 산의 신이 관음보살과 습합했는지, 본지가 어떤 신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이 신이기도 한 관음보살이 사는 장소라는 전제는 공통된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절이 있는 장소에 관음보살이 있거나 혹은 관음이 있는 장소에 절을 세웠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닛코 후타산의 경우 관음보살이 있지만 그것은 원래 신이다. 이것은 신불습합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도 시사하는 바가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일본의 보타락 신앙을 생각할 때 닛코 후타라산보다 잘 알려진 것은 구마노를 중심으로 한 보타락도해일 것이다. 일본의 보타락 신앙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유명하다. 보타락도해란 기이반도의 남단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락을 향해서 배로 출발하는 신앙으로 중세·근세에 성행했다. 보타락도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가 있는데²⁸⁾, 일본의 보타락 신앙을 생각할 때 그것이 「도해」와 연결되어 있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후타라산과 달리 「바다」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해양 신앙적 요소를 가지는 한국이나 중국의 보타락 신앙과도 공통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차이도 존재한다. 그것은 관음보살이 사는 장소이다. 보

24) 주(1)참조

25) 818년이라는 발문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정확한 성립 연대는 알 수 없다.

26) 我山是大乘相應之地、觀音利生之處(『續群書類從(28上)』p131~2)

27) 向北方尋求。終至雪山麓。有一大河。嶺岩峨々。銀水碧々。동 전개주(26)p131

28) 주(1)根井淨(2001) 참조.

타락도해의 경우 일본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이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출발지이며, 목표로 하는 보타락은 바다 건너에 있다. 일본은 관음보살이 사는 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보타락도해는 어디를 향해서 실행되었던 것일까. 이 경우에 「어디」란 구체적인 지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보타락을 향해서 배를 탄 사람들도 막연하게 남쪽으로 갈 뿐 구체적인 목표가 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보타락의 정확한 위치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보타락으로 가려 하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보타락이 있다고 생각해서 출발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보타락도해와 관련이 있는 문헌을 보면 현실세계와 죽은 후의 세계가 혼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왕생」이다.

보타락도해를 말할 때 보타락에 가는 것을 왕생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왕생이란 보통 사후의 세계, 즉 「저 세상」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세에서 내세로 가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타락에 「왕생」한다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물론 보타락을 향해서 배로 출발하는 이상, 보타락을 「현신」으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에는 역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표류한 상태로 죽은 경우 어떻게 될 것일까. 혹은 보타락도해의 실천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고려했을까²⁹⁾.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보타락이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그것을 연상시키는 「도남국(度南國)」에 관한 설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최근에 보타락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³⁰⁾ 『일본영이기(日本靈異記)』 상권 제30화에 나타난 설화이다. 가시와노오미 히로쿠니(膳臣廣國)라는 사람이 사후에 도남국이라는 지옥과 정토가 혼재하는 장소로 건너가서 소생했다는 이야기이다.

가시와데노 히로쿠니는 부젠국 미야코군의 소령이다. 후지와라 궁에서 천하를 통치한 천황의 시대, 768년 가을 9월 15일에 히로쿠니가 죽었다. 3일 경과한 술의 날의 오후 4시경 다시 소생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자가 두 명 있었다 <중략> 사자에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사자가 대답했다. 「도남국이다」. <중략> 도남국의 왕은 히로쿠니에게 명령했다. 「너는 죄가 없다. 집에 돌아가도 괜찮다. 그러나 절대로 황천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 만약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남쪽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하셨다. 가 봤더니 정말로 아버지가 있었다³¹⁾.

29) 역기서는 자세히 논할 수 없지만, 보타락도해를 시도한 사람들이 향한 곳은 예전부터 말해지는 수평타계관과 수직타계관이 섞여 있는 관음의 정토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30) 동 전계주(6)

죽은 후 도남국으로 간 히로쿠니가 이어서 남쪽에서 살아 있었을 때 저지른 살생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부분이다. 이 설화에는

불경을 읽은 사람은 동방에 있는 금의 궁전에 살고, 숙원에 따라 나중에 천국에 태어난다. 불보살을 만드는 사람은 서방 무량수정토에 태어나고 방생하는 사람은 북방 무량정토에 태어난다³²⁾.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도남국이 동서남북의 「남」에 해당하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듯이³³⁾ 마지막 부분에서 관음보살이 등장해서 히로쿠니를 구제한 것을 보면 관음의 정토, 즉 보타락을 포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일본영이기』나 그것을 답습한 『곤자쿠 이야기 집(今昔物語集)』 등에도 「도남국」을 보타락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살생을 한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쪽의 정토라고 해도 『화엄경』 등에 나타난 보타락과는 전혀 다른 세계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히로쿠니는 죽은 후 도남국에 건너갔다는 부분이다. 적어도 도남국은 이 세상에 없는 장소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보타락도해의 사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기사를 보고자 한다. 헤이안 시대의 귀족 후지와라 요리나가(藤原頼長)의 일기인 『태기(台記)』 1142년 8월 18일의 기사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현신」으로 보타락에 참배하기 위해서 나치(那智: 기이반도의 남단)에서 바다로 출발한 가쿠슈(覺宗)라는 사람의 기록이다.

18일에 권승정 각종을 초대했다. <중략> 승정은 말했다. 「젊었을 때 나치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한 명의 승려가 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현신으로 보타락산에 가고 싶다. 작은 배 위에 천수관음을 안치해서 출발하고 싶다. 3년간 기도하고 있었는데, 북풍이 7일간 불고 있었다. 이 상태로 몇일이 지나서 북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 왔다. 승려는 기뻐해서 배를 타고 남쪽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다. 남쪽을 향해 갔기 때문에 승도(승관의 둘째 계급)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해서 산에 올라 보고 있었다. 각종도 같이

31) 膳臣廣國は豊前の國宮子の郡の少領なり。藤原の宮に宇御めたまひし天皇のみ代に、慶雲二年乙巳の秋九月十五日庚申、廣國に死ぬ。逕ること三日、戌の日の申の時に、更に甦きて語りて曰はく「使二人有り <中略> 使人に問ひて曰はく『是は何の國ぞ』といふ。答ふらく『度南の國なり』といふ」。 <中略> 王、廣國に詔して曰はく『汝實に罪無し。家に還る可し。然れども愼黃泉の事を妄ニ宣べ伝ふること勿かれ。若し父を見むと欲はば、南の方に往け』とのたまふ。往きて見るに、實に我が父有り。(日本古典文學大系『日本靈異記』p141-143)

32) 經を讀ま令むる者は、東方の金の宮に住み、後に願に隨ひて天に生まる。仏菩薩を造る者は、西方无量壽淨土に生まれ、放生する者は、北方无量淨土に生まる(同p145)

33) 동 전계주(6)

보고 있었다. 7일간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아마 소원은 성취했을 것이다. 나는 말했다. 「언제의 일이나.」 「호리카와원의 시대이다」 라고 대답했다³⁴⁾.

천수관음을 들고 배를 탄 이유는 항해 안전을 보증해준다는 『법화경』에 나타난 관음보살의 영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밀줄부분인데, 이 기사에서 죽음을 개재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보타락이라는 전제를 읽어낼 수 있다.

한편 다른 소개하는 내용은 「현신」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보타락으로 간 설화이다. 보타락도해의 사례 중 오래된 것으로 분류되는 『대일본국 법화경험기(大日本國法華經驗記)』의 기사이다.

승려가 도조신의 이야기를 듣고 3일간 열심히 법화경을 읽었다(1). 4일째에 도조신이 머리를 숙여 경전을 읽은 사람에게 예배를 하고 말했다. 「성인의 자비 덕분에 지금 인천한 몸을 떠나서 승묘하고 청정한 공덕의 몸을 얻고(2), 소위 말하는 보타락세계에 왕생 하고(3), 관음보살의 권속이 되어 보살의 지위로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묘법을 청문한 큰 신력이다. 허실을 알려고 한다면 초목의 가지로 나무의 배를 만들어 나의 목상을 실어 바다 위에 떠올려서 어떻게 될지 봐달라고 말했다. 승려는 나무의 배를 만든 후 도조신의 상을 태우고 바다 위에 떠올랐다(4). 조금도 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도 없는데, 나무의 배는 남쪽을 향해 재빠르게 달려가 버렸다³⁵⁾.

『법화경』의 공덕과 왕생 이야기를 모은 문헌이 『대일본국 법화경험기』이지만 실은 『법화경』에 보타락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화경』을 읽은 공덕을 전제로 하면서 (밀줄(1)) 거기에 보타락 신앙이 결합되는 설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밀줄(3)처럼 보타락은 「왕생」해서 가는 장소라고 생각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왕생은 일반적으로 죽은 후 다른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쓰여 있고 헤이안 시대의 「왕생」이라고 하면 아미타불의 세계인 극락정토나 미륵보살의 정토인 도솔천을 들 수 있다. 거기에서는 죽음에 관한 명확한

34) 十八日戊寅、招權僧正覺宗〈中略〉僧正語云、少年籠那智之時、有獨僧云、我現身、祈參補陀落山、小舟上造立千手觀音、奉令持楫、祈請已及三年、祈北風、七日不止也。如此經數日、得大北風、僧慶乘舟、向南、禮拜無止時。差南遙行、僧都以爲希有、登山見之、覺宗同見、七箇日之間、風不止、料知、願成就矣、余云、何時哉、答、堀川院御時也。(『台記』康治元年(1142) 8월18일 『史料集成』 p72)

35) 沙門道祖神の語に依りて、三日三夜、一心に妙法華經を讀誦せり。第四日に至りて、道祖神頭面をもて持經者を礼して言はく、聖人の慈悲に依りて、今この卑賤受苦の身を免れ、勝妙清淨の功德の身を獲り得て、所謂補陀落世界に往生し、觀音の眷屬となりて、菩薩の位に昇らむ。これ妙法聽聞の威しき神力なり。虚實を知らむと欲せば、草木の枝をもて柴の船を造り、我が木像を乗せて、海の上に放ち浮べて、当にその作法を見るべしといへり。沙門柴の船を造り已へて、道祖神の像を乗せ、海の上に放ち浮べり。更に風吹かずまた浪動かずして、柴の船南の方の界を指して、早速に走り去りぬ。(日本思想大系『往生伝・法華驗記』 p216)

기술은 없지만, 밑줄(2)에서 알 수 듯이 적어도 「현신」으로서가 아니라 변신해서 관음세계로 간다고 쓰여 있다. 또한 밑줄(4)에서는 배를 타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태기』의 기사처럼 이 세상과 연속된 장소라고 생각되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설화에서 보타락의 성격을 완벽히 읽어내는 일은 어렵겠지만 일본을 떠난 곳에 보타락이 있다는 점은 『태기』의 기사와도 공통된다. 적어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자신들이 사는 곳에 관음이 있다는 발상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보타락도해의 전제는 관음은 어디서나 먼 바다 끝에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13세기 전반의 활약한 가모토 초메이(鵬長明) 『발심집(發心集)』에 수록된 다음 설화에도 나타난다.

또한 범부이기 때문에 만일 죽는 직전에 왕생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1). 보타락산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현신으로 갈 수 있는 장소이다(2).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일을 그만두고 토사(土佐)에 살고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새롭게 작은 배를 하나 만들어서 아침과 저녁에 이것을 타는 방법을 배웠다. 그 후 선원에 「북풍이 계속 불었을 때 알려 주세요」라고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바람이 불어 왔다. 그 작은 배에 돛 걸치고 단 한 명만 타고 남쪽을 향해서 가 버렸다.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중지시켜도 소용없었다. 가 버린 방향을 허무하게 보고, 울면서 슬퍼했다. 이것을 본 그 당시의 사람들은 깊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타락에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³⁶⁾

밑줄(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타락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 세계와 연속된 곳이라고 파악되어 있다. 다만 약간 흥미로운 부분은 밑줄(1)이다. 여기에 있는 「의심 가진 마음」이란 죽기 전에 부처님이 정말로 정토에 이끌어준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라는 의미이다. 「범부」 즉 보통사람은 그렇게까지 부처님의 구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몸으로 보타락에 가려고 하는 것이다. 보타락 그 자체는 현실 세계와 연속적으로 파악되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의 문제가 숨어 있다. 원래 당시 일

36) 又、凡夫なれば、もし終りに至りて、いかが、なほ疑ふ心もあらん。補陀落山こそ、此の世間の内にて、此の身ながらも詣でぬべき所なれ。しからば、かれへ詣でんと思ふなり。又即ちつくろひやめて、土佐の國に知る處ありければ、行きて、新しき小船一つまうけて、朝夕これに乗りて、梶取るわざを習ふ。その後、梶取りをかたらひ、「北風のたゆみなく吹きぬらん時は、告げよ」と契りて、其の風を待ちえて、彼の小船に帆かけて、ただ一人乗りて、南をさして去りにけり。妻子ありけれど、かほどに思ひ立ちたる事なれば、留めるにかひなし。空しく行きかくれぬ方を見やりてなん、泣き悲しみけり。是を、時の人、こころざしの至り淺からず、必ず参りぬらんとぞおしはかりける。(新潮古典集成『方丈記 發心集』p138)

본에서 남쪽 바다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처럼 정확한 지리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것은 죽음과 연결된 위험한 행위였다. 그래서 『대일본국 법화경험기』에는 「왕생」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보타락을 향한 신앙이지만 거기에는 「죽음」이 깔려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상기되는 것은 『헤이케 이야기(平家物語)』에 나타난 고레모리(維盛)가 자살하는 장면이다.

나치산에 참배했다. 세 개의 줄로 흘러 떨어지는 폭포의 물은 수천길 정도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관음의 영상은 바위 위에 나타나서 보타락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개 속에는 법화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영취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략> 「1184년 3월 28일 나치의 바다 속에서 투신자살했다」라고 쓰고, 다시 배로 바다에 나왔다. <중략> 중장은 신뢰할 수 있는 선지식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망념을 반전시켜서 높은 소리로 염불을 100번 주창하면서, 「나무」라는 창소리와 함께 바다에 들어가셨다³⁷⁾.

일단은 나치를 보타락이라고 보면서 다음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고레모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죽음의 직면할 때는 아미타불을 위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데,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보타락에 가는 길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보타락이란 「현신」으로 「도해」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한편에서는 죽음과 연결된 형태로 신앙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한 의미로 현실 세계와의 관계가 매우 강한 한국이나 중국의 보타락신앙과는 대조적이다.

5. 나오며

이 논문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보타락신앙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논해 왔다. 보타락은 남쪽에 실재하는 관음보살의 거처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 이미지는 험한 산이 있고 깨끗한 연못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보타락이 섬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경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그

37) 那智の御山にまいる給ふ。三重に漲りおつる瀧の水、數千丈までよちのぼり、觀音の靈像は岩の上にあらはれて、補陀落山ともいつべし。霞の底には法花讀誦の聲きこゆ、靈鷲山とも申つべし。〈中略〉壽永三年三月廿八日、那智の奥にて入水す」とかきつけて、又奥へぞこぎいで給ふ。〈中略〉中將しかるべき善知識かなとおぼしめし、忽に妄念をひるがへして、高聲念佛百反ばかりとなへつゝ、「南無」と唱る聲とともに、海へぞ入給ひける。(日本古典文學大系『平家物語(下)』p278~83)

리고 이러한 보타락 신앙을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낙산사, 중국에서는 보타산이라는 관음의 도량이 형성되고 있었다. 섬인가 아닌가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 모두 바다에 접한 장소에 있고, 그 땅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보타락 신앙에 의거한 영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닛코 후타라산은 신불습합을 전제로 한 신사로 관음보살이 신과 습합하고 있었다. 이곳은 바다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산의 이미지를 반영한 보타락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이반도를 중심으로 보타락도해라는 신앙도 있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보타락을 목표로 배로 출발하는 신앙이다. 이러한 경우 기이반도는 관음의 거처가 아니고, 보타락은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보타락도해는 「왕생」과 밀접하게 결합되다. 이 경우 보타락은 현신으로 갈 수 있는 정토이기도 하고 죽음과 결합된 내세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바다와 산이라는 시각에서 보타락 신앙을 고찰해 왔지만,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료적으로 논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향후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필요한 문헌은 각주의 명시되어 있다. 원래 2중 기재는 피해야 하지만, 단행본(연구서)에 한해서 다시 기재한다.

後藤大用(1958) 『觀世音菩薩の研究』山喜仏書林

사찰문화연구원 편(1998) 『洛山寺: 觀音信仰의 聖地 五峰山 洛山寺』(사찰문화연구원)

根井淨(2001) 『補陀落渡海史』法藏館

要 旨

この論文では、韓國·中國·日本の補陀洛信仰を比較しながら、それぞれの特性について論じてきた。補陀洛は南方に實在する觀音菩薩の居所と考えられてきた。そのイメージは険しい山があり住んだ池があるというものだった。また補陀洛は島であるという考え方も存在していた。この点は經典によって少し差異がある。そして、この補陀洛信仰を背景に、韓國では洛山寺、中國では普陀山という觀音の道場が形成されていた。島かそうでないかという違いはあるが、兩者ともに海に面した場所であって、その地に觀音菩薩が住んでいるという信仰形態を持っていた。一方、日本でも補陀洛信仰に基づいた靈地が形成されていた。日光二荒山は、神仏習合を前提とした神社で觀音菩薩が神と習合していた。ここは海に面していないので山のイメージを反映した補陀洛信仰と言える。また、日本では紀伊半島を中心に補陀洛渡海という信仰があった。これは、南の方にある補陀洛を目指して船で出發するという信仰である。この場合、紀伊半島は觀音の居所ではなく、別の場所にある補陀洛淨土を目指していた。そして、補陀洛渡海は「往生」と密接に結びついており、現身で行ける淨土であるという一方で、來世的な信仰を兼備していた。

キーワード：補陀洛，『華嚴經』，洛山寺，普陀山，日光二荒山，補陀洛渡海

투 고 : 2010. 11. 30

1차 심사 : 2010. 12. 11

2차 심사 : 2011. 1. 08